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59호 [부제 제 25768호] 주제 106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또 다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또 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블리병철동지, 김정식동지, 조용원동지, 유진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락겸동지 그리고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로켓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12》형 로켓 운영부대가 참가하였다.

이번 로켓 발사 훈련은 최근 우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핵무력 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이번 발사 훈련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적으로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성포병들이 숙련된 화력부무동작으로 《화성-12》형 로켓을 잘 다룬다고 치하시면서 중장거리

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떠들어대고있는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위한 공격과 반공격작전 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핵탄두 취급 절차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행동 절차를 확정할 목적 밑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의

의 명령에 따라 이른아침 발사장에 신속히 기동전개된 화성포병들은 능숙한 조직과 지휘 밑에 발사준비를 갖추고 가슴베근한 박찬 흥분속에 탄도 로켓 발사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사장에 도착하시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2》형 발사

계획과 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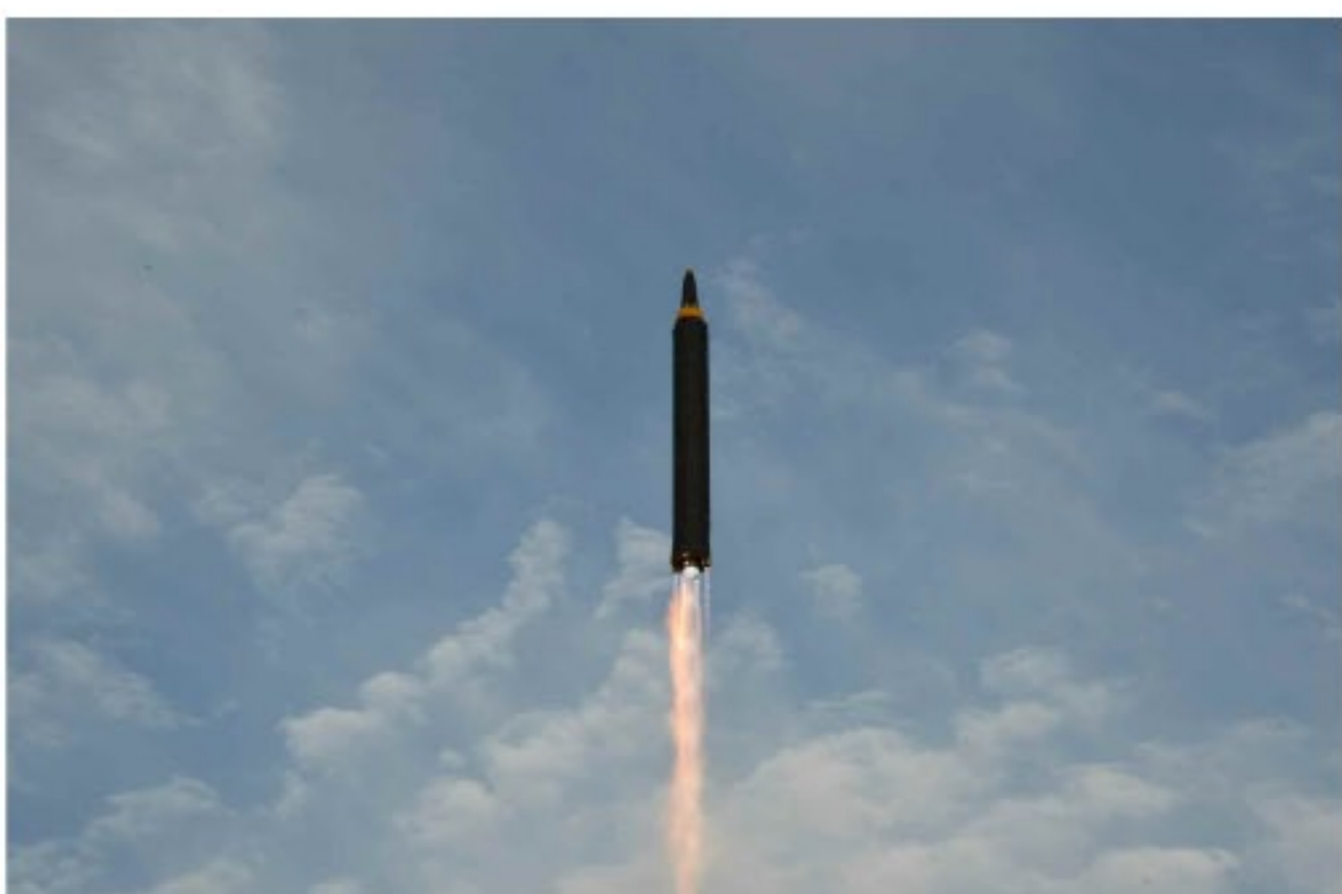
순간 그 어떤 광란에도 굴함없이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인양 《화성-12》형이 눈부신 섬광과 장엄한 폭음으로 온 행성을 뒤흔들며 창공높이 치솟아올랐다.

발사된 탄도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일본 홋카이도

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운영성원들의 실전 능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고,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또 다시 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모든 훈련이 이번과 같이 백 무력전력화를 위한 의미있는 실용적인 훈련으로 되도록 하며 각종 핵탄 두들을 실전배비하는데 맞게 그 위급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켓 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화성포병들이 긴밀한 편계를 가지고 로켓의 현대화, 첨단화와 운영수 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일군 들에게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

는것이라고,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수 있는 군사적공격 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세상이 인정하듯이 우리는 수십 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속에서 지 금의 모든것을 이루었지 결코 유엔 의 그 어떤 《해택》속에 얻어진것 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유엔 의 제재마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 시킬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 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국주의자들에게 우리 국가 가 그들의 무제한한 제재봉쇄속 에서도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어 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달은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 트 《화성-12》형발사훈련에 참가한 로켓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은 자신의 피와 온넛을 짱그리 바쳐 새형의 첨단로켓체제들을 련이어 완성시켜주시고 여러차례 실전훈련 을 지도해주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가고

계시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국가의 안전과 조국의 명토를 강위력한 탄도로케 트들로 굳건히 수호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또 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년과 조국 해방 7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화국, 중앙아시아의 위원장, 도이칠란트공산당 위원장, 로만리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스위스공산당 총서기,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기네비국제인민연방 총서기, 페루근로자당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또한 이란이슬람교혁명당 부총서기, 이집트아랍공화국 부총리, 세계평화회의의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 리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소 국제연합 총서기,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네팔, 만다, 몽골, 중국, 쿠웨이트, 이란, 도이칠란트, 로만리아, 러시아, 폴란드, 발가리아, 벨라루시, 스위스, 슬로베니아, 프랑스, 폴스카,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앙골

라, 칠레, 페루, 에콰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소, 조선통일지도 및 선진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8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려왔다.

그들은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세계 자주화위업의 완성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대한 업적을 인류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만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국가

9.9절정추 배후중앙집회와 5일 리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배후공산당(붉은 조국), 배후공산당, 자유투쟁투쟁을 위한 배후인민투쟁운동, 배후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배후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회, 배후조선선문화협회, 배후인민전선동맹, 배후김정숙동지연구소, 배후페데라티오 필라델피아국제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체 우리의 나라 혁명전선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참가하였다.

배후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기나 발레르 로베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군 69돐에 즈음하여 중앙집회를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가장 길숙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은 동지,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세계가 우러러 보는 자주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단방에 존엄되었고있다.

김일성동지는 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벌써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조국통일하시였으며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신 위인중의 위인, 회세의 정치가, 강철의 혁명지도자이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그의 사상과 위업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다.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부패없이 엄격한 시련의 시기

선군정치로 미국과의 대결전을 편전 면승으로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탁월한 명도자이시이다.

오늘 조선은 김정은동지의 명도밑에 주체의 혁명국, 대륙간단도르케트 보유국으로서의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있으며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결사의 각오로 충만하여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고 자기 위업의 승리를 확신하며 투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힘을 당당히 세상에 알렸다.

집회참가자들은 《배후조선전선 만세!》, 《항적조선인민과의 면대성 만세!》, 《단결된 조선인민은 승리한다!》라는 구호를 호창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위업의 최고령도자 이시며 재일조선여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꿈결에도 뵈고싶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던 제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 성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머리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일본전쟁의 결성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저희들은 주체적애의코로녀성운동의 개척자, 명도자이시며 재일조선녀성들의 참다운 삶의 은인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하시는 사회주의조국의 즈음으로 달리는 마음을 진정할줄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대표단을 어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시었습니다.

어니조국에 불러주시건만도 더없는 영광이건 단 우리 수령님들께서 남달리 아끼고 위해 주시던 재일동포녀성들이 조국에 왔다고 속속으로 원히 정해주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소같은 은총을 우리 이제 친년이고 만년이고 간들 잊을수 있었습니까.

사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친정아버지의 다정한 정을 부여주시며 꿈에도 바라볼수 없었던 영생의 정에 내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저희들은 이땅에서 쌓이고쌓였던 만사들을 풀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찬 조국방문의 나날을 보낼수 있었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최상최대의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녀성동맹 일꾼들과 동포녀성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삼가 머리굽혀 큰절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속

에 끝까지 흘러간 이변 조국방문의 나날에 저희들은 한생토록 잊지 못할 함으로 귀중한것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체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그리고 조선혁명박물관과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분들을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살며 두정하여왔는가를 다시금 실감깊이 절감하였습니다.

뜻깊은 제류의 나날 저희들은 대륙간단도르케트장학을 수료한시험에서 완전성공한 대경사를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하면서 온 세상 이 우리의 칭송하는 원수님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들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평양가방공장, 금강제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지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조국의 버린 현신속에 태동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해돋이를 기쁘게 그려볼수 있었습니다.

정녕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진실을 끊임없이 수놓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인민의 은혜로운 태양이시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성다해 받들어모시는 길에 주체혁명위업, 총애애국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조국방문의 나날에 더욱 실감깊이 쏘아박은 역사의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저희들은 이 불편의 신념을 과우명으로 새겨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일체 단심 받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성장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의 자랑찬 역사를 총정과 애국의 단대기로 영원히 빛내어나가겠습니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은 주체의 사상체계, 명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 애국애국의 성불로 반성같이 다지고 모든 동포녀성들을 사회주의조국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열렬충녀들로 든든히 준비시켜 총애애국위업의 한복속배바퀴를 더욱 믿음직하게 떠밀어나가겠습니다.

새 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녀성들을 망라한 대중운동을 왕성하게 밀려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굳건히 지키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원화지대본인 민족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우리의 아발달, 손자, 손녀들이 총정의 바통, 애국애국의 계투봉을 역세게 이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붉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만리마선구지대회를 향한 조국인민들의 전민총투쟁전에 발걸음을 맞추어 백두산현제일강국건설에 불심방면의 애국지성을 다 바쳐나갔습니다.

집체위원의 손길아래 더욱더 강성민영할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그려보며 이역의 애국초소를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전체 일꾼들과 동포녀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 이시고 미래이시며 재일본조선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